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4.4.(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7일 목요일 오전에는 통일연구원 개원 31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 주변국 갈등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통일부 장관이 개회식에서 영상으로 축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월 8일 금요일 오후에는 사단법인 남북역사학자협회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2022년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남북역사학자협회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만월대에 위치한 고려 황궁을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의 복원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인데요. 통일부 장관이 영상으로 축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통상적인 일정은 주간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4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최근 서육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남측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와 관련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며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북한이 어제 김여정 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한 데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로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담화와 의도나 배경을 예단하지 않고 제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 업무 등 북한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북은 지난해 10월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에 오늘 현재 까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통신 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도 개시 통화가 정

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 분위기를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은 김여정, 박정천 담화에 이어 오늘도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방을 이어갔는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며,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답변> 최근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현안을 소재로 우리 측에 대한 비난의 빈도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북한의 잇단 대남 비난의 의도와 향후 조치를 예단하지 않고 제반 동향을 면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